

⑥ 河東郡辰橋面事務所內三層石塔…：理盲山北麓의 것을數十年前日帝時에移安한 것이라함

⑦ 晉州平居洞石佛…：山淸에서 移安한 것이 아니라 現位置가 原位置임을 確認함.

—第八卷 第四號 通卷八十一號—

吳越王 錢弘俶 八萬四千塔

梅原末治

이 吳越王 錢弘俶의 八萬四千塔은 비록 出土地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南鮮에서의 出土임이 明確한 點에서 하나의 重要的 例로 認定됨으로 以下에 概要를 記錄할 것이다.

銅造의 이 塔은 終戰前 서울에 在住하면서 半島의 古文物에 興味를 갖이고 그 蒐集에 힘써오던 故伊東楨雄氏의 遺品の 하나로 지금도 그 遺族이 保存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보기에 토中에서 不注意하게 파낸 것임을 드러내는 鮮명한 綠銹를 보이는 破損品이다. 따라서 此種蒐集品의 常例로 出土地의 所傳을 缺하고 있으나 當時 發現 것을 古物商을 거쳐 마침 氏가 入手한 것임이 틀림없다. 筆者는 再昨年 十月 同氏 蒐集品을 觀賞中 그 遺存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游離된 것이지만 半島에서의 出土品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却說 이 遺品은 周知의 八萬四千塔의 他 遺存例와 全혀 同形의 破損品으로 現存한 것은 塔의 主要 部分인 原來 鑄着한 四面이 떨어져서 따로 따로 되어 있어 도리어 그로해서 原來의 鑄成한 모양을 잘 볼 수 있다. 塔의 四面에는 다른 것과 同一한 圖像이 刻出되어 있고 그 一面의 內側에 다음과 같은 來由를 적은 四行의 銘記가 있는 것도 現存한 中國 日本의 現存品과 同一하다. 그래서 이 銘은 拓影에서 보는 바와 같이 鮮明하다.

吳越國王

錢弘俶敬造

八萬四千寶

塔乙卯歲記

또한 塔은 臺座에 該當되는 內側 四方에는 各各 「德」이란 一字의 文字가 있다. 이 文字는 日本의 筑前大泉坊의 塔에서는 「化」로 되었다.

이 八萬四千塔은 中國 五代의 最後의 國王이었던 錢弘俶이 阿育王의 故事를 따라 八萬四千基의 小塔을 만들고 寶篋印心咒經을 넣어서 諸國에 나누어 佛敎國에서의 造塔史에 有名한 바로 그 造塔의 하나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西紀 九五五년에 鑄成된 많은 寶物中에서 程祕의 「龍山勝相寺記」에 五百基를 나눴다고 傳하는 日本에서의 傳存品의 若干이 이미 알려져 있지만 今世紀에 들어 中國에서 出土品 또한 차츰 傳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破損品은 實物로 보아 틀림없이 同時의 것으로 半島의 高麗에 나뉘던 것中 하나에 該當하는 것인 點에서 重要的 意味가 있고 그것이 日本에 現存한 것이 「化」인 것과 달리 「德」인 點이 別個의 무리임도 말하는 것이다. 當然히 將來 같은 出土가 또 있을 것이 의당 期待되는 바이다. (秦弘燮譯)

